

터커, 5안타 6타점 '불꽃쇼' … 삼성에 대패 설욕

KIA, 삼성에 12-3 승…스윕패 탈출
터커, 연타석 홈런…新 해결사 등극
첫 승 이어 두번째 승리도 수훈
양현종, 6이닝 2실점 QS…첫 승
윌리엄스 감독 KBO 첫 주 '2승 4패'

파워를 더한 터커가 KIA 타이거즈의 신흥 해결사로 떠올랐다.

KIA가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시즌 3차전에서 12-3 승리를 거뒀다.

앞선 삼성과의 두 경기에서 0-5 영봉파, 2-14 대패를 기록했던 KIA는 장단 15안타로 12점을 뽑아내며 연패에서 탈출했다.

지난 7일 키움과 경기에서 쇄기 스리런을 날리며 윌리엄스 감독에게 KBO 첫승을 안겨줬던 터커가 두 번째 승리도 책임졌다. 이번에는 더 강렬한 활약이 있었다.

터커는 연타석 홈런 포함 5안타 6타점으로 6타점을 짱쓸이했다.

'에이스' 양현종은 피홈런 두 개를 기록했지만 타선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개막 두 번째 등판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선취점은 삼성의 몫이었다.

양현종이 2회 선두타자 이원석에게 좌월솔로포를 맞으면서 선제점을 내줬다.

하지만 터커가 이어진 공격에서 홈런으로 맞불을 놨다.

3회초 KIA가 선두타자 최원준과 김선빈의 2루타 두 개로 1-1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1사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터커는 삼성 선발 백정현의 141km짜리 직구를 밀어 좌측 담장을 넘기며 3-1을 만들었다.

3회말 삼성이 김동엽의 솔로포로 추격해오자 4회초 터커가 다시 움직였다.

나지완의 2루타로 시작된 4회, 나주환과 한승택이 범타로 물러났지만 최원준이 중전안타로 3루에 있던 나지완을 흡으로 불러들였다. KIA가 상대 유격수의 송구실패와 김선빈의 우전 적시타로 4-2로 점수를 벌렸고, 이어진 2사 1-3루에서 터커의 쇄기 포가 나왔다.

터커는 이번에도 백정현의 직구를 밀어 연타석 홈런을 장식했다.

터커의 활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6회 1사 1-2루에서 맞은 세 번째 타석에서 우전 안타로 타점을 추가했고, 7회 5번째 타석에서도 중전안타를 만들며 '5안타+6타점+11루타' 활약을 했다.

선발 양현종은 6이닝을 2실점으로 막으면서 승리 투수가 됐다.

1회 2사에서 김상수에게 2루타를 맞은 양현종이 살리디노를 3루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1회를 넘겼다.

2회말 이원석에게 선두타자 홈런은 내줬지만 이후 세 타자를 범타로 처리했다. 선두타자 김성표를 중전안타로 내보낸 3회에는 박해민을 상대로 병살 타를 유도하면서 주자를 지웠다. 이어 김동엽에게 솔로포를 맞았지만 김상수를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하며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다.

4회 2사에서 첫 볼넷을 내준 양현종은 이후 더 이상의 볼넷과 안타는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5일 키움과의 개막전에서 3이닝 4실점으로 고개를 숙였던 양현종은 두 번째 등판에서는 84개의 공으로 6이닝을 소화하며 4피안타(2피홈런), 1볼넷, 3탈삼진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이와 함께 키움, 삼성을 만난 윌리엄스 감독의 KBO리그 첫 주는 2승 4패로 마무리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삼성의 시즌 3차전에서 3회초 2점 홈런을 친 터커가 최형우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BO, 볼판정 논란 심판들 퓨처스리그로 강등

이용규, 인터뷰서 '일관성' 요구 발언에 강력 조처

KBO가 리그 신뢰 강화를 위해 심판위원회의 퓨처스리그 강등 카드를 꺼내들었다.

KBO는 지난 8일 "7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한화와 SK경기 해당 심판위원 전원(5명)을 9일부터 퓨처스리그로 강등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화 주장 이용규의 '소신 발언'에 이은 조치다.

이용규는 7일 SK전에서 결승타를 치며 팀의 8-4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멀티히트를 남긴 이용규는 아쉬운 볼판정 속에 삼진 두 개도 기록했다.

그리고 이용규는 경기가 끝난 뒤 진행된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선수들 대부분이 볼판정에 대해, 일관성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며 "안타 하나를 치기 피 나는 노력을 하는 선수들이 있다. 그런 것을 알아주

시고,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다"며 심판진의 일관성 있는 볼판정을 부탁했다.

이용규의 인터뷰가 나간 뒤 논란이 커지자 KBO는 즉각 반응했다.

KBO는 해당 경기 심판위원들의 시즌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퓨처스리그 강등과 재교육이라 는 조강수를 뒀다. 또 향후 심판 판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판정과 관련해 리그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O는 심판의 볼판정 등에 대한 선수의 공개적인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리그 존중 차원에서 자체와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고진영 - 박성현 '별들의 전쟁'

24일 9년만에 '현대카드 슈퍼매치' 서 맞대결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5)과 전 세계 1위 박성현(27)이 '현대카드 슈퍼매치'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현대카드 슈퍼매치 고진영 vs 박성현'이라는 명칭으로 열리는 이 대회는 24일 오후 2시 인천 스카이72 골프엔리조트에서 펼쳐진다.

현대카드 슈퍼매치는 2005년 마리야 사라포바(러시아)와 비너스 윌리엄스(미국)의 테니스 경기를 시작으로 테니스, 피겨스케이팅, 스노보드, 민스크포츠 등 차별화된 스포츠 이벤트로 진행됐다.

올해 박성현과 고진영의 골프 대결은 2011년 열린 댄스스포츠 이후 9년 만에 열리는 현대카드 슈퍼매치 시리즈다.

박성현과 고진영의 경기는 상금이 걸린 각 흘에서 타수가 낮은 선수가 해당 흘의 상금을 가져가는 '스킨스 게임'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총상금은 1억원이고 상금은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이 지정한 기부처에 전달된다.

똑같이 세마스포츠마케팅을 매니지먼트 회사로 두고 있는 고진영과 박성현은 "모든 분이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골프 선수로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골프로 응원의 삶을 보내고 싶다"며 "모든 삶과 흘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최고의 플레이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고진영은 지난해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과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으며 2018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상, 2019년 올해의 선수와 상금왕, 최저타수 등을 휩쓸었다.

역시 메이저 2승의 박성현은 2017년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와 신인상을 석권하는 등 고진영과 함께 현재 세계 여자 골프의 '양강'으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는 선수다.

이번 대회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대회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체온 검사를 시행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대회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공인을 받았으며 골프 전문 케이블-위성 채널인 SBS골프가 생중계한다.

공교롭게도 고진영과 박성현의 맞대결은 타이거 우즈와 필 미클슨(이상 미국)의 이벤트 대회에 하루 앞서 열리게 됐다. 두 대회 모두 개최 날짜는 24일로 같지만 한국과 미국의 시차 때문에 고진영과 박성현의 경기가 하루 일찍 진행된다. /연합뉴스